

회당운동

에스라 7:25-28, 사도행전 17:1-9

최정웅 목사님

예전에 영어회화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무턱대고 미국 사람만 만나면 담벼락 이야기를 하더라.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예들은 회화를 하더라. 그런데 계면적이고 미안해서 말을 안 붙여본 사람은 지금도 말을 잘 못 한다. 십 수 년을 배웠는데도 그런다. 허브 리말에 '후즈프(moon)'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당돌함, 혹은 '주체넘은', '뻔뻔스러운', '철면피'라는 말이다. '놀라운 용기'라는 말도 되고 '오만'이라는 말도 된다. 유대인들은 무례하다 할 정도로 질문을 쏟아낸다고 한다. 그게 이스라엘만의 문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답을 얻는다고 한다. 세계의 서밋으로 가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나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뭔가 물어보면 '왜 이런 걸 나에게 물어?'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 그런데 우리는 괜히 미안하다 싶어서 묻지 않으니까 모르게 되는 것이다. 네 명의 남자가 모퉁이에 있는데, 미국인, 러시아인, 중국인, 이스라엘인이 있었다고 한다. 신문기자가 물었다. "실례지만 육류 품귀사태가 일어났는데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이, "품귀가 뭐예요?" 물었다. 러시아 사람은 하는 말이, "육류가 뭐예요?" 중국 사람은 "의견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실례지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더라는 것이다. (웃음) 이만큼 유대인은 '실례지만'이라는 말 자체를 모를 정도로 물어본다. 모르면 당돌하게 물어보고 자기 지식을 채운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으로 지식을 쌓게 되더라는 것이다. 오늘 주제가 회당운동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나라를 세웠는데 다시 정체성을 찾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세웠으며, 잃어버렸던 자기 말을 복구했다. 세계 경제와 언론, 문화, 정보를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 가지 일화가 있다. 베스파시아인이라는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 랍비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 장례를 치르게 해 달라."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랍비의 관이 지나가는데, 장군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을 내려놓더니, 그 죽었다는 랍비가 관에서 나온 것이다. 장군을 만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장군을 보면서 예언을 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오" 듣기 좋지 않나.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열렸던 모양이다. "우리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회당 하나만은 살려 달라." 하고 하나만 남겨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LA에 연방정부가 허락한 한국인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200만 불이 없어서 몇 때문에 결국 유지하지 못했다. 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폐교되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샅과 한다.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헬렌 권사님이 우리교회에서 2년 정도 지냈는데, 그 학교 인수를 하라고 권유하고 그랬었다. 50만 불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간 두고 갚으면 된다. 목사님만 오시면 이사 선임도 다 해 드리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도내이션은 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울먹이는 소리로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영어를 아는가, 학교를 운영해 보았나. 나는 목회밖에 모른다. 돈이 어디에 있나. 의논할 사람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학교를 낚아채 버렸다. 베벌리힐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학교였다. 유대인들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그 학교를 인수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렘넌트들의 길이 꼭 열렸지 않았는가? 연방정부가 인정 한 학교였는데 말이다. 그것을 놓치더라. 도대체 교포들은 미국에서 돈 벌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더라.

이 랍비가 학교, 회당 하나만 남겨달라고 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말 로마에 내란이 일어났다.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내란을 수습했다가 진짜 황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속을 지켰다. 유대인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 서밋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으로 남게 되었다. 6.25때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지 않았다. 가평고등학교 이야기다. 미군 2사단이 가평 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사단장이 지프를 타고 지나가다가,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전쟁이 한창인 때였다. 이 광경을 보고 사단장이 감동을 받았다. '이 나라는 반드시 회생하겠구나.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참모들과 이야기했다. "우리가 2달러씩만 기부하면 학교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참호에 있는 병사들까지 좋다고 해서 2달러씩 기부했다. 더 하지 말고 그만쯤만 하라고 했는데 3만 달러가 모였다. 이렇게 해서 부대원들이 헌신하고 공병대가 동원되어서 학교를 지었다. 그게 가평고등학교다. 지금도 학생 네 명씩 선발해서 미국의 군부대에 가서 소통한다고 한다. 거기에서도 지금도 장학금을 계속 보낸다고 하더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후대를 생각하지 않는 가정, 사람들은 멸망한다. 다 없어져도, 후대 세울 시스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일은 로마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부터 이 시스템이 생긴 것이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발강가에 모여서

비파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탄식하며 울었다고 했다. 그때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포로로 같이 잡혀갔다. '우리가 성전을 잃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성전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나.' 이 사명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가면서도 말씀을 짊어지고 간 것이다. 어떤 담벼나 율법학자는 성경을 아예 외우는 사람이 있었다. 이 성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우리 민족이 살겠구나 싶으니까, 몇 가정만 있으면 모여서 쉬나고(συναγωγος : 영. synagogue)를 만들게 되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고 하는데, 공회당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춤도 추고, 축제도 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회당이 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다. 성전산을 회교도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14번이나 치렀지만 다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도 회당만 있다. 우리가 교회를 성전 개념으로 볼 것인가, 회당 개념으로 볼 것인가? 나는 회당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본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전이다 하니까, 청바지도 입고 오면 안 되고 기타도 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곳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회당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나라가 망했지만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출바벨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다. 복음 놓친 유대 나라는 결국 무너질 것을 알았다. 흠어진 자들이 세운 회당이 곳곳에 있으니, 이리로 들어가서 후대를 살리던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비전을 품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일으켰다. 회당운동이 무엇이며,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간결하게 나누고 기도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1. 회당운동의 의미

첫 번째로, 회당운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1)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포로되어간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예배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점점 모이게 되고, 소통하면서 교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했던 것이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망했으니, 말씀을 이체는 붙잡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정리하고, 암송하고, 베껴 쓰게 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가르친 것이다. 그러니까 회당은 예배장소, 교육장소, 소통의 장소, 교제의 장소였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우고 가르치고 후대를 기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은 룯지까지 만들어서 후대를 키우고 있다.

(2) 전도자 바울이 여기에 눈을 뜬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로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가르치는 값급한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준 것이다. 정확한 복음, 성경의 진짜 의미를 전달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의 원인과, 그 해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한 것이다.

(3)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이다. 발견하게 되었다.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값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결론을 내고 복음을 붙잡게 되었다.

(4)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으로 먼저 들어갔다. 여기에서 나온 제자들과 함께 불신자 현장으로 파고드는 전도캠프를 본격적으로 일으켰다.

(5)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온 최고의 열매가 렘넌트였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 디도 같은 속사도 교부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정리해 보면, 바울이 응답 받았던 회당운동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비된 제자를 찾고, 이 제자들과 함께 불신자 살리는 캠프를 하면서, 결국 후대를 참전도자, 참 성공자로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교회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오늘 메시지를 받았다. "여기는 네덜란드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고은 자매를 만났고 내일도 만날 예정입니다. 목사님,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부예배 메시지를 잘 들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 말씀을 붙잡겠다고 연락이 왔다. 신승훈 장로님 부부가 보내온 메시지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2. 회당운동의 방법

크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회당운동을 펼쳐야 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바울이 했던 회당운동을 우리가 다시 펼쳐야 되겠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를 찾고 후대를 세우는 회당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하겠다는 말이다. 거기에 열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1) 회당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교역자들이 잘 들어야 한다. 무

엇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가. 성도들이 여러분을 왜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능력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한국과 세계 교회는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 오직 예수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그런 신학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혼합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하나되는 것과 혼합주의는 다르다.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도 그 안에서, 토론하더라도 그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는 거부한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정훈 교수 영상을 보시지 않았다. 기독교를 박멸시키겠다고 종자연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주님이 베풀어 매리니까, 그제서야 회개가 나왔다. 반 죽어야 그렇게 된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우리는 겁내지 말고 우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회당운동을 펼쳐야 한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의 문제라는 것,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라는 것, 사단 마귀로 인한 운명의 문제라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이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잉태해야만 한다는 것, 죄가 없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해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 나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나 이분은 나에게 사랑을 주었고, 생명이 천보다 귀함을 가르쳐주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가르쳐주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참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②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지금 종교집단에게 기도의 비밀을 다 빼앗겨 버렸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108배 하면서, 온갖 것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회교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깔고 기도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다. 기도하는 교역자를 찾기가 힘들다.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빠졌는데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도는 종교인과 다를 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어야 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응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여러분 집에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가? 나는 내방이 곧 기도 장소다. 장로님들은 교역자들을 두고, 기도는 어디에서 하시는지, 생활은 어디에서 하시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도와야 한다.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른 교회 가서는 다 가르쳐주는데 본교회에서는 그 말을 못 하겠다. 그렇다고 다른 부흥장사를 불러서 그 말을 대신 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한다.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을 한 번만 보여줘도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부모님이, 선생님이 보여주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된다.

③ 그러면 모든 무능도 무너지게 되고, 성령충만과 권능을 받으면서 전달되게 된다. 이것을 사도행전 1:1, 3, 8이라고 한다. 이게 회당운동의 내용이다. 이 근본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우리 후대들의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다락방, 지교회가 이것이다. 현장에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2) 회당운동의 방법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산만해서 집중을 못 한다. ADHD라는 병 아닌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게 없으면 서밋으로 절대 못 간다. 영적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답을 줘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축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친구하고 같이 잠을 잤다, 다르다. 답을 가진 선생님과 같이 자고, 묵욕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교회학교 각부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모여서 집중을 회복한다면, 무능도 무지도 질병도 가난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안 되는 게 없었다. 생명을 걸어버렸기 때문이다. 치유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3) 마지막 세 번째는 회당운동의 목표다.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 짓밟고 성공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살려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친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라, 많이 벌어서 주어야 해야 한다. 빌 게이츠는 에이즈 극복을 위해서 5조원을 기부했다고 하지 않나. 돈 벌어서 남 줘야 한다. 돈 벌어서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왜 못 하는가. 공부해서 남 주시게 바란다. 돈 벌어서 세계 살리시게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다. 머리 터지도록 배워서 세계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237개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우리 가문, 우리나라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다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램넌트의 마음에 237개 나라가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선교지를 보낼 때도,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서 살려야 할 나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나라를 보도록, 세계화의 그릇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사명이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지 않나. 그런 일이 237개 나라를 향해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의 목사님이 연락을 해 왔다. 탈북자로 구성된 24인조 밴드가 있다고 한다. '이들을 참사랑교회에서 흡수해서 양육하고, 선교팀으로 헌신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시길래, 왜 안 되겠느냐 했다.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한다. 북한선교를 생각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는가.

말씀을 무마리하였다. 항상 말씀을 붙잡을 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찾아야 한다. 새벽기도만은 해 보겠다, 말씀만은 붙잡겠다, 강단만은 붙잡겠다, 기도만은 하겠다, 주일학교 교사만은 하겠다, 찬양대만은 해 보겠다, 지교회만은, 다락방만은 해 보겠다 하는 실천을 한 가지는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당운동을 오늘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

(1) 우리 교회가 회당운동의 센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교회에서 초등신학원을 하는데, 잘 하라. 정성을 다해서 도와줘라. 장로님들이 도와줘라. 우리교회 애들이 아니네 하지 말고 다 도와줘라. 다 우리 아이들이다. 뭘 도와야 할 것인지를 보라.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회당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배의 역사, 후대 양육의 역사, 지역 문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비전스쿨이 학생이 12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된다. 부모들이 매달 45만 원씩 낸다고 한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돈 안 내도 되는데 45만 원을 내고 비전스쿨에 보내는 것이다. 내년에는 9명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계속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기로에서 있다고 한다.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달라고 하더라. 교회에서 지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이부를 연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아직 비전스쿨을 위해서 투자한 적이 없다. 그 이상을 투자해야 유지할 수 있다. 반액만 회비로 받아도 보내겠다는 사람이 많다. 30명이 넘어 버리면 자립할 수 있다. 우리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해야 하나' 하면 망한다. 이런 것은 이유가 없다. 나는 우리교회에 부임한 지 38년째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교육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은 이유를 묻지 말고 허락하라, 그것 깎으라고 장로 집사 시킨 것이 아니다, 무조건 줘라, 꿈을 꾸겠다고 하면 무조건 해 줘야 하지 않는가. 물론 밥 사먹는다고 하면 안 준다. 그런 것은 재물을 건다. 쓸데없는 데 쓴다고 하면 안 준다. 그러나 꿈을 키우는 데 주는 예산은 다 준다. 어린이부는 다 써 버리더라. 잘 했다. (웃음) 그렇게 해도 괜찮다. 비전스쿨도 우리가 조금만 투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자급자족할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안 된다고만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인데, 기초가 되는 유치부부터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전 세계 어린이를 태어날 때부터 7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기면 세계를 천주교화 시킬 것'이라고 수녀들이 말한다고 한다. 상상 섬기는 사람들이 꾸는 그 꿈을 왜 우리는 못 가지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왜 그 꿈을 못 가지는가. 그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2) 복음운동의 핵심은 후대 살리는 것이다. 후대가 있는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말씀운동 펼칠 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램넌트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역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만나서 구체해야 한다. 그러면 부모도 변한다. 신앙으로 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분을 홍보하지 않는다. 존경하게 된다. 올-인 하는 교역자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부모님들은 램넌트 훈련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훈련을 점검하고, 말씀운동을 하도록 점검해야 한다. 장로님들이 태영이부를 돌아보라. 한번 돌아보기만 해도 달라진다. 긴장하게 된다. 뛰어다니고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짜장면 사주면서 얘기해 보라. 그러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어 보라. 아이들이 달라지게 된다.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이것은 교역자, 교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중요하다. 부모님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스스로 결단하기는 어렵다. 회당운동은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후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램넌트 살리는 현장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집중하는 한 주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을 여기에 모아,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21세기 회당운동을 전개하게 해 주옵소서. 램넌트 중에서 세계 살리고 민족 살릴 인제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